

2023년 상반기 국내·외 바이오제약 산업 동향

최소영 대리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문세영 상무 ES인베스터

개요

바이오제약 분야의 주가는 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에 1,410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다시 활기를 띤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약 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비만 치료제로 인해 일라이릴리(Eli Lilly)사 및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사 등 바이오제약사의 가치가 높아졌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60억 달러에서 2028년 약 80억 달러로 연평균 7.9%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 WHO는 비만치료제를 필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세를 보였던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 바이오엔텍(BioNtech)사 등은 코로나 엔데믹(endemic, 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며 시가총액은 계속 감소하였으나, 2023년 2분기에는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잃었던 1분기 대비 개선이 된 상황이다. 본 브리프에서는 Evaluate Vantage 보고서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해외 바이오제약 산업 현황과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 현황을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23년 2분기 바이오제약사 현황

2023년 1분기에 바이오제약 주가 지수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2분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한 일라이릴리(Eli Lilly)사 및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사의 기업가치 평가(합계 1,490억 달러)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일라이릴리(Eli Lilly)사의 레타트루타이드(Retatrutide), 마운자로(Mounjaro[®], Tirzepatide)와 노보 노디스크사의 위고비(Wegovy[®], Semaglutide)의 경쟁 하에 양사의 주가는 2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라이릴리사는 체중감량 효과를 내는 치료제로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보다 앞서 가장 주목받는 제약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노보 노디스크사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의

기업을 추월하며 대형제약사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노바티스(Novartis)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에서 키스칼리(Kisqali[®])의 NATALEE 3상 연구로 유방암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사는 화이자와 공동개발을 통해 TLA1 항체 후보물질의 궤양성대장염 임상 2b상의 56주차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소기업 중 이뮤노젠(Immunogen)사는 FRα 타겟 항체-약물접합체(ADC) '엘라히어(Elahere™, Mirvetuximab soravtansine-gynx)'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재발 및 사망위험을 35%까지 감소시키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슈뢰딩거(Schrödinger)사는 자체 파이프라인 'SGR-1505'(혈액암)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1상 IND 승인을 받으며, AI 분야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서도 역량을 강화했다.

[그림 1] 바이오제약사의 2023년 상반기 주가 상승(좌) 및 하락(우) 목록

Biopharma's biggest stock market winners in H1 2023				Biopharma's biggest stock market losers in H1 2023			
Company	H1 share price chg	H1 market cap chg (\$bn)	Market cap at 30 Jun 2023 (\$bn)	Company	H1 share price chg	H1 market cap chg (\$bn)	Market cap at 30 Jun 2023 (\$bn)
Big pharma				Big pharma			
Lilly	28%	97.6	445.2	Pfizer	-28%	-80.6	207.1
Novartis	11%	16.5	211.6	Abbvie	-17%	-48.1	237.7
Sanofi	9%	12.9	134.6	Bristol Myers Squibb	-10%	-18.6	134.3
Large cap (\$20bn+ market cap)				Large cap (\$20bn+ market cap)			
Seagen	50%	12.2	36.1	Wuxi Biologics	-37%	-12.0	20.2
Vertex	22%	16.5	90.6	Moderna	-32%	-22.7	46.3
Novo Nordisk	20%	51.7	356.2	Biontech	-28%	-10.4	26.0
Mid cap (\$5-20bn market cap)				Mid cap (\$5-20bn market cap)			
Apellis	76%	4.9	10.6	Halozyne	-37%	-2.9	4.8
Legend Biotech	38%	4.1	12.5	Ascendis Pharma	-27%	-1.9	5.0
Roivant Sciences	26%	2.1	7.7	Sino Biopharmaceutical	-25%	-2.8	8.2
Small cap (\$250m-5bn market cap)				Small cap (\$250m-5bn market cap)			
Immunogen	280%	3.2	4.3	Fibrogen	-83%	-1.2	0.3
Reata	169%	2.2	3.4	Altimmune	-78%	-0.6	0.2
Schrödinger	167%	2.0	3.1	Esperion Therapeutics	-78%	-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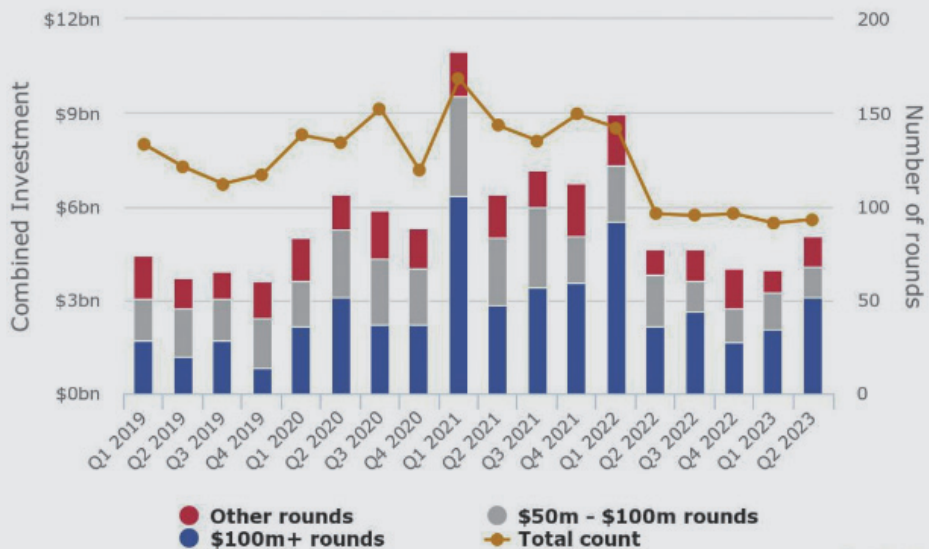
그러나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텍사는 전년 대비 시가총액 1,140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의 수혜를 반납했다. 미국 애브비(Abbvie)사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휴미라’ (Humira®, Adalimumab)의 특허 독점권이 만료된 상황에서, Skyrizi®(Risankizumab)와 Rinvoq®(Upadacitinib) 판매마저 저조했다.

어센디스(Ascendis)사는 미국 FDA로부터 성인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 치료를 위한 트랜스콘 PTH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 허가신청에서 제조 관리 관련 우려 때문에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에스페리온 테라퓨틱스(Eesperion Therapeutics)사는 고지혈증약 넥스레톨(Nexletol®, Bempedolic acid)을 두고 공동 개발사인 일본계 다국적제약사 다이이찌 산쿄(Daiichi Sankyo)와 의견이 엇갈리며, 마일스톤 지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주가가 78% 하락했다.

■ 바이오 제약 분야의 벤처캐피탈(VC) 투자

2023년 2분기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VC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53억 달러로,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 VC가 소수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연간 투자금의 35%가 1억 달러 이상 라운드에 투자되었고, 해당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2022년에는 54%, 올해 상반기에는 59%를 기록했다. 분기별 바이오 VC 투자 그래프를 보면, 2023년 상반기에만 90억 달러 이상 자금이 조달되었다.

[그림 2] 분기별 바이오 VC투자 건수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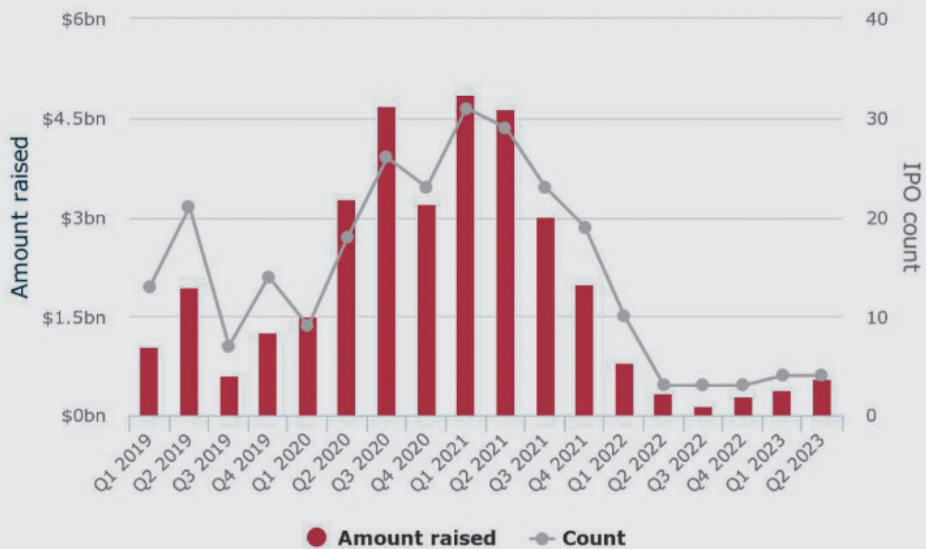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 엘리베이트바이오(ElevateBio)사가 2023년 2분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받으며, 시리즈 D로 4억 1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아유르마야 캐피탈 매니지먼트 펀드(AyurMaya Capital Management Fund)가 주도했고, 소프트뱅크(SoftBank Vision Fund 2) 등 기존 투자자와 함께 R&D 파트너인 노보 노디스크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인 헤이스 바이오파마(Hasten Biopharmaceutic)가 시리즈 A에서 3억1500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2위를 기록했다.

🏥 바이오제약 기업공개(IPO) 현황

2023년 2분기에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바이오 제약기업은 여전히 적었으나,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2023년 1분기와 동일하게 4개의 기업이 상장하며, 약 5억 7000만 달러를 조달하였으며, 2023년 6월에는 2건의 대형 IPO가 있었다.

[그림 3] 분기별 바이오제약 IPO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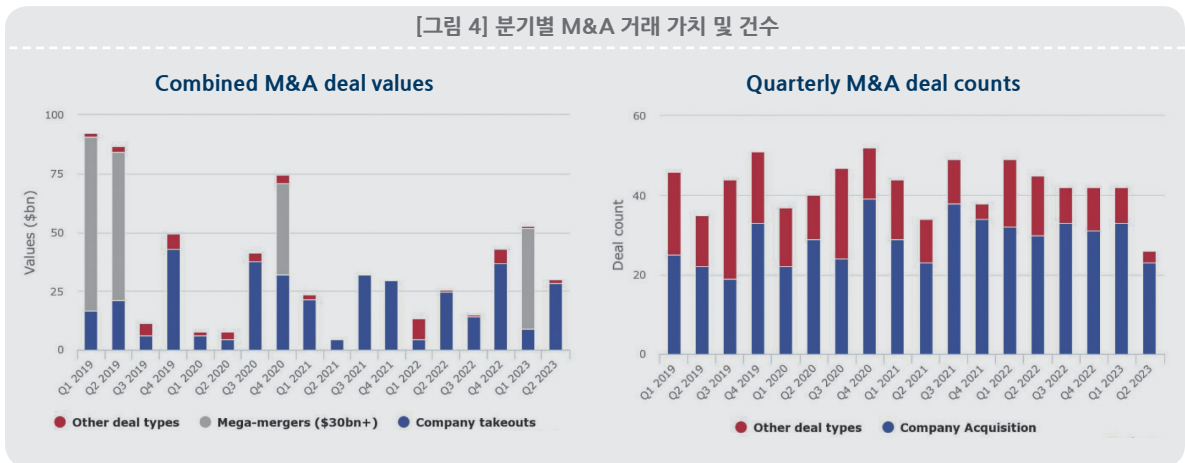
면역학에 중점을 둔 바이오로직스 연구 그룹 파라곤 테라퓨틱스(Paragon Therapeutics)에서 분사한 아포지 테라퓨틱스(Apogee Therapeutics)는 1억 달러 자금 조달을 희망하고 있으며, 턴스톤 바이오로직스(Turnstone Biologics)는 중앙침윤림프구(TIL)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해 8,600만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상장을 포기했던 대사성 질환 연구 기업 새기멧 바이오사이언시스(Sagimet Biosciences)는 7,500만 달러 자금 조달을 신청하며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2분기 가장 주목할 IPO 기업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엑셀러린(Acelyrin)사이다. 엑셀러린사의 조달 금액은 5억4000만 달러로 2018년 상장한 모더나 이후 바이오제약 기업으로는 공모금 액이 세 번째로 컸다. 당시 모더나는 IPO 목표를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수정된 목표보다 430만 달러를 초과하며 바이오텍 IPO 기록을 새로 썼고, 2021년 상장한 사나 바이오텍(Sana Biotech)이 5억8800만 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바이오제약사의 M&A 거래

바이오제약사의 인수합병(M&A)이 2023년 상반기에 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19년 이후 저조했던 M&A 거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약사들이 어려운 경제적 시기를 활용하는 볼트온(Bolt on)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주목할 만한 M&A로 상반기 중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는 12건이 있었으며, 이 중 8건이 2분기에 발생했다. 화이자가 시젠(Seagen)을 인수하기 위해 4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2023년의 가장 큰 규모의 M&A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분기별 M&A 거래 가치 및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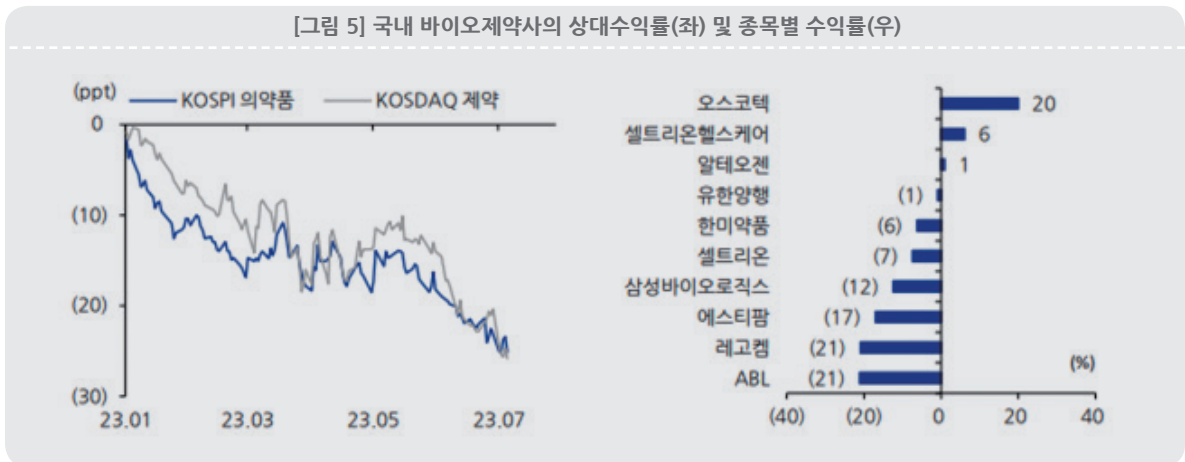


한편, 바이오제약 M&A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반독점 감시기관인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미국 약가 규제 영향이 존재한다. FTC에서는 암젠(Amgen)이 호라이즌(Horizon)을 인수하게 되면 희귀약품에 대한 독점의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며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IRA법 상 약가 규제 역시 저분자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수익성 측면에 불리하게 작용해 제약사들의 M&A 의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바이오제약사 현황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주가 수익률은 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7월 기준)에 11.6% 하락하며, KOSPI 및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이 각각 25.1%, 25.8% 하락하였다. 2분기 초(5월)에 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하락한 상황이다.

[그림 5]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상대수익률(좌) 및 종목별 수익률(우)



출처: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바이오제약 сек터에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현실화시키거나 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M&A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제약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만 총 27건의 M&A가 성사되었으며, 규모는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2023년 상반기에 총 6건의 M&A 계약이 체결되었다.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에빅스젠을 152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며, 유한양행이 300억원을 투자해 다중표적항체 기술을 보유한 프로젠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통합물류 솔루션 기업 로지스팍은 의약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택배의 지분 100%를 330억 원에 매입했다.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IPO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유투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 등 총 5개 사이며, 이 중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유투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에 나선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심사를 승인받은 기업은 큐라티스, 에스바이오메딕스, 파로스아이바이오, 프로테움텍 등 4개 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표 1] 국내 바이오제약사 IPO 추진현황

기업명	상장 유형	상장 청구일	결과 확정일	심사결과
큐라티스	신규	2022.08.04	2023.01.19	심사 승인
에스바이오메딕스	신규	2022.05.23	2023.02.09	심사 승인
파로스아이바이오	신규	2022.08.26	2023.03.16	심사 승인
프로테움텍	이전	2022.10.06	2023.03.30	심사 승인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신규	2023.01.19	-	청구서 접수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이전	2023.02.28	-	청구서 접수
와이바이오로직스	신규	2023.03.16	-	청구서 접수
유투바이오	이전	2023.04.12	-	청구서 접수
에스엘에스바이오	이전	2023.04.20	-	청구서 접수

국내 비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 상반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에 37개 기업이 총 3,224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7개 사 중 헬스케어에 해당하는 기업 15개 사(1,212억 원, 38%)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신약개발 13개 사(1,284억 원, 40%), 커머스 및 위탁생산 5개 사(437억 원, 13%), 진단 및 기타 4개사(291억 원, 9%)가 차지하였다. 2023년 처음으로 자금 조달을 마친 헬스케어 업체 수가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 수를 앞섰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이슈로 주요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등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또한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상장사인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여 스마트데포 기술이 적용된 당뇨·비만치료제의 기술수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미약품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며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개발해 온 에페글레타나이드를 비만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해 출시 준비에 착수했다.

맺음말

글로벌 바이오제약사의 2023년 상반기 주가 현황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매출 상승이 동반되었다. 바이오제약 기업의 VC 투자금액이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M&A의 경우에도 2023년 상반기에 바이오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에 나섰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한미약품, 펩트론 등의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기전·제형 변경 등으로 비만치료제 개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를 보아 국내 바이오제약사 또한 독자적인 기술로 기술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해본다.

또한, 바이오제약 분야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한 면이 있었으나 IPO 기업이 증가하게 된다면 비상장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과 바이오 투자 생태계 전반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장 바이오제약 투자 현황에서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 대비 헬스케어 기업이 많아져 바이오제약 분야의 투자 트렌드가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보였다.

< 참고자료 >

1. Biopharma and Medtech H1 2023 Round Up: The haves & the have-nots, Evaluate Vantage, 2023.07
2. Big Pharma dealmaking recovers with \$85bn M&A splurge, FINANCIAL TIMES, 2023.05
3. In heavyweight obesity fight, Eli Lilly launches Mounjaro head-to-head trial against Novo Nordisk's Wegovy, FIERCE pharma, 2023.04
4. Global Anti-Obesity Drugs Market (2023-2028) by Drug Type, Mechanism of Action, and Geography, Competitive Analysis, Impact of Covid-19 with Ansoff Analysis, RESEARCH AND MARKETS, 2023.01
5. 바이오벤처에게도 '봄'이 온다... 최소 9곳 이상 IPO 도전, HITNEWS, 2023.04
6. 돈 줄 막힌 바이오 기업들...인수합병에서 활로 찾나, MedicalTimes, 2023.06
7. IPO 부진 여파?...국내 헬스케어 M&A 10달만에 3.2조, 데일리팜, 2023.05
8. 비상장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 '신약개발→헬스케어'로 변화 조짐, HITNEWS, 2023.07
9. 제약바이오업종 7월 투자전략, 유진투자증권, 2023.07
10. 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發 '비만치료제' 호재에 국내 관련주 동반 강세, 매일경제, 2023.08

Writer

최소영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대리

Reviewer

문세영 ES인베스터, 상무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3년 8월 | 발행인 : 오기환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g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berc@koreabio.org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81
 ISSN 2508-6812